

2010년 7월 아몬드 현황

2010년 7월의 아몬드 선적량은 1억 1,200만 파운드이며, 2009년 7월의 1억 2,100만 파운드보다 7.4% 감소했습니다.

분석

2009년 전체 선적: 14억 7,100만 파운드
 2010년 유입 잔여분: 3억 600만 파운드

2010년 예상 수확: 16억 5,000만 파운드
3% 손실 차감: (4,900만 파운드)

2010년 가능 선적량(예상): 19억 600만 파운드

*백만 아래는 반올림된 수치임. 따라서 총합(합산 또는 차감) 수치는 개별 수치로 계산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선적

2010년 7월의 선적량 1억 1,200만 파운드는 대단한 수치로 업계에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역대 7월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2009년 선적량은 14억 7,100만 파운드로 집계됐으며, 지난 시즌의 13억 9,000만 파운드보다 6% 이상 높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캘리포니아는 역사상 가장 많은 아몬드를 선적했습니다.

8월 1일부터 2010년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시장

역대 7월 중 최대치인 4,050만 파운드를 기록. 미국 시장은 2009년 시즌 12개월 중 10개 달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일상 식단에 아몬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

수출은 2008년 시즌 7월에 비해 12% 감소했습니다(8,170만 파운드에서 7,150 파운드로). 시즌 전체로 보면, 서유럽으로 수출된 캘리포니아 아몬드는 2% 감소했습니다. 중유럽 및 동유럽으로 수출된 양은 13% 증가했습니다. 중동 및 아프리카는 2% 감소했고, 아시아는 17% 증가했습니다.

확정 재고(committed shipment)

미국 내 확정 재고(판매 계약했으나 선적되지 않은 물량)는 21.9% 감소했습니다. 수출 확정 재고도 31.7% 감소했습니다. 또한, 미확정 재고(판매 계약이 되지 않은 아몬드)는 21.4% 감소했습니다(모두 지난 시즌 같은 기간 대비).

국가별 선적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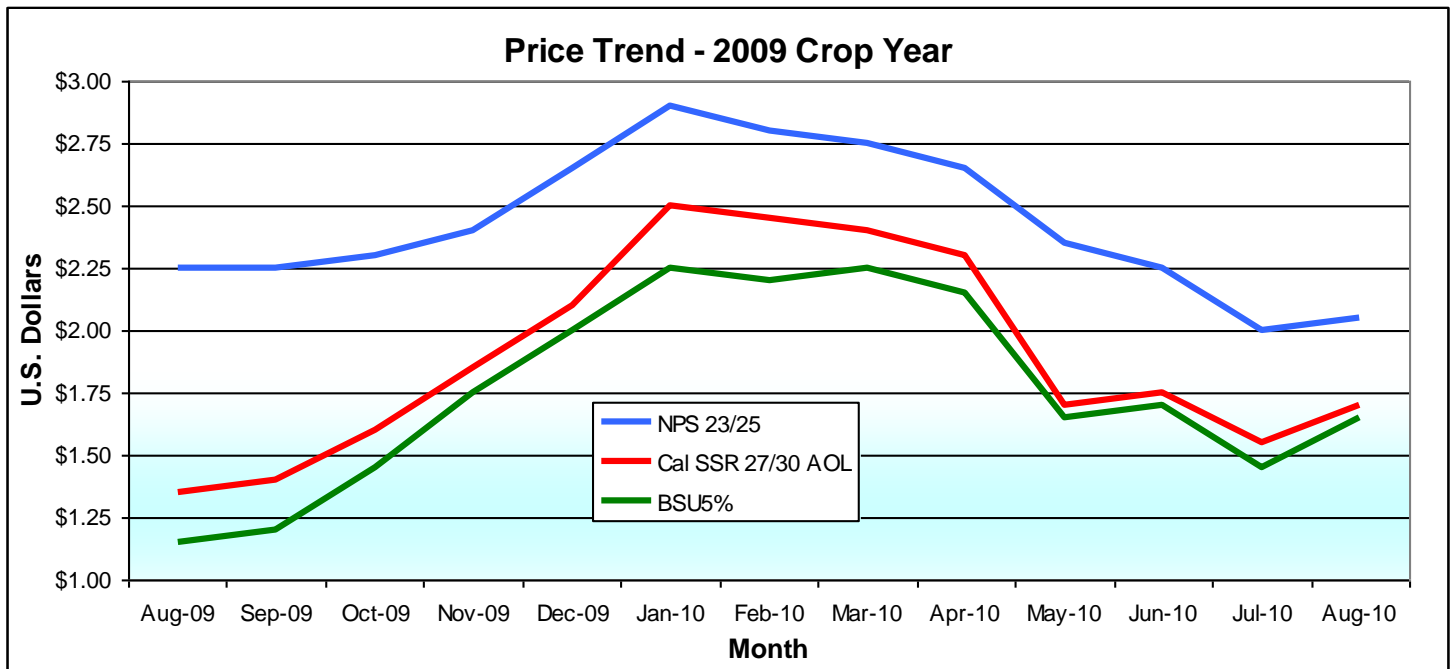
다음은 아시아 주요국의 탈각 및 비탈각 아몬드 선적량 통계입니다(단위는 파운드).

국가	2009.8 - 2010.7		2008.8 - 2009.7		%변동
	탈각	비탈각	탈각	비탈각	
중국/홍콩	78,815,343	54,227,493	69,373,459	30,326,625	33%
일본	52,803,098	127,211	48,713,557	278,676	8%
한국	25,688,219	0	21,211,139	0	21%
대만	6,704,972	358,186	5,733,044	319,441	17%
말레이시아	4,179,702	0	2,616,447	0	60%
태국	3,370,169	525,612	2,079,300	27,527	85%
베트남	1,039,750	3,235,199	479,200	434,788	368%

2009 년 시즌 검토 및 2010 년 예상

2009 년 시즌도 역시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역대 최저가 중 하나로 시즌을 시작하여, 1 월에 이르는 동안에는 중국과 중동이 엄청난 속도로 사들여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2 월이 되자 해외 시장이 과잉 구매했다는 것을 인식하자 수입수요가 멈췄습니다. 주요 시장에 재고량이 충분하단 걸 캘리포니아는 늦게 인식한 듯합니다. 3 월에는 캘리포니아산 아몬드에 대한 수요가 정말 더더졌고, 호주산 아몬드가 시장에 진입하여 중동과 인도에 엄청난 양이 캘리포니아 가격보다 낮게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늦은 비로 호주산 아몬드 품질문제가 대두됐고, 3 월 말에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영국 및 아랍 에미리트의 지불 불이행으로 인하여 더욱 더 악화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가격 하락 득을 봤습니다. 미국 시장은 매달 선적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7 월 8 일 미 농산물통계국(NASS)가 발표한 객관적 아몬드 양은 16 억 5,000 만 파운드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큰 수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격이 안정된 후 며칠 안에 가격은 파운드당 \$0.50 더 내려갔습니다. 저희는 가격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예상은 맞았습니다. 7 월 8 일 시작된 가격 하락 이후 3 주 만에 시장은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프로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시장이 아몬드를 사려고 합니다. 전 세계 바이어들은 나름의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바이어들이 2009 년 시즌 전반에 이익을 본 후, 시즌 후반에 손해를 봤습니다. 모두 가장 저점에서 들어오고 싶어하겠지요. 저희 생각으로는, 예상되는 저점 시기는 7 월 9 일-16 일(NASS의 객관적 통계치-16 억 5 천만 파운드- 발표 다음 주 내내)이었을 것입니다.

인내가 미덕이겠지요. 많은 바이어들의 모토, 슬로건일 테고요. 잘 알려진 날짜의 휴일들이 다가옵니다. 디왈리(Diwali: 힌두교 축제)가 11 월 5 일, 중국 설이 2 월 3 일(지난해보다 11 일 이름). 그리고 12 월 25 일 성탄절.

바이어들의 생각:

(a) 수확이 시작되면, 캘리포니아 셀러들은 자신감을 잃고 패닉할 것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논파레일 수확물이 좋을 것이다(그러면 나무 당 논파레일이 더 많이 나오고, 열매도 더 크다는 NASS의 예상이 맞게 된다. 이런 일은 과거엔

2670 West Shaw Lane, Fresno, California 93711 U.S.A.

Telephone (559) 435-2664 • Fax (559) 435-8520 • www.dercofoods.com • e-mail: derco@dercofoods.com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16억 5천이라는 수치도 더욱 신뢰가 가게 된다. 다른 품종에 대해서도 그 정확도에 의문을 품지 않을 테니까.

(b) 수확 직후, 재배업자들은 공간이 부족해서 신속하게 물량을 내보내기 위해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취할 것이다.

(c) 아직 수확 재고가 많이 있다. 최상의 품질은 아니지만, SSR을 판매해야 할 테고... 그러면 과연 산업용 제품 가격은 어떻게 될까? (파운드당 \$1.20까지 떨어졌었고, 다시 \$1.65로 힘차게 복귀했는데...)

(d) 캘리포니아의 “예상”이 어떻건 간, 아몬드 부족현상은 없으며, 이걸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아무리 많이 선적한다고 해도, 2011년 시즌으로 유입되는 양은 3억 파운드가 넘을 것이다. 기다리면 덜 내고 살 수도 있겠지. 더 낼 것 같진 않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보자...

셀러의 생각:

(a) 지난해에 비해 1억 파운드가 적다(지난 8월 1일은 4.13억, 올해는 3.06억).

(b) 과거의 월평균 가격을 살펴봤는데, 논파레일의 현재 가격은 지난 7년보다 더 낮다. 7-8월의 NP 23/25가 파운드당 \$2.05-\$2.10 FAS 사이라고 하자. 2009년 8월의 NP 23/25보다 파운드당 \$0.20이 더 낮다. 그런데, 사실, 2003년에 NP 23/25의 가격이 더 낮았던 적이 있다(참고로 2009년 1월-2월 사이에 NP 23/25의 가격이 파운드당 \$1.90이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였다).

(c) 논파레일의 가격이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낮았을 뿐만 아니라, 논파레일의 수확이 NASS 보고서 예상과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d) 수확이 보통보다 7-14일 늦어진다. 이렇게 되면, 바이어들이 휴일 명절 시즌 수요를 맞추기 위해 주문할 기간이 더 짧아진다.

(e) 인도는 논파레일 가격이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도 가격이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중동도 가격이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시장의 재고는 과거 어느 달보다 낮다. 인도는 대량 물량 주문을 더 이상 지체하지 못 할 것이다. 인도가 구매를 시작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며, 중국 수입업자들도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2월 3일이 중국 설인데, 현실적으로 중국은 9월부터 선적이 되어야 한다. 12월 15일 이후 선적되면 시간에 맞춰 물품을 받거나 처리하지 못 할 것이다.

(f) 2010년 라마단이 곧 다가온다. 따라서, 중동 국가 및 무슬림 인구가 많은 지역의 아몬드 재고가 격감되거나 줄어들 것이다. 이런 감이 있지만, 다음 라마단은 2011년 8월 1일에 시작된다. 신규 수확물을 얻을 기회는 없다. 2010년 수확물로 해결해야 한다. 논파레일의 수요가 가장 클 것이다.

(g) 농사/재배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생산비용이 직접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아몬드 재배업자들이 농사/생산 비용을 가지고 이슈화를 시키면 생산 비용 요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납 건

튀니지의 제너럴 트레이딩 컴퍼니(General Trading Company, 대표 알리 메디오니)가 Derco Foods와의 계약 3건에 대한 체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니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일로 업체 이름을 공개하자니 유감이긴 합니다. 바이어의 비협조적인 태도, 투명성의 부족, 진술한 의사소통의 부재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결론

누가 오래 버티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바이어나 셀러냐...

현재 수요는 있습니다. 2010년 시즌에 캘리포니아가 15억 5천만 파운드를 팔 것은 사실상 보장되어 있고, 다음 시즌 유입량은 3.5억 파운드가 될 것입니다. 다른 너트류의 가격은 더 비싸질 것입니다. 바이어들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수확량이 15.5억이건 16.5억 파운드건 상관없이 어쨌거나 수확이 시작되면 아몬드느 빠른 속도로 판매될 것입니다.

8월 둘째 주 후반부터 산호아킨 밸리의 남쪽에서 수확이 시작될 것이며, 북가주 쪽은 8월 셋째 주부터 수확이 시작됩니다. 심리적 기다리기 시합에 모두 돌입해 있습니다. 유럽의 바이어들은 2010년 9월-2011년 6월(파운드당 \$1.70)의 BSU5% 오퍼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재배업자들은 파운드 당 \$1.50 아래(현장 차원에서)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난국은 몇 주 안에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그 사이, 논파레일은 현재, 역사상 낮은 가격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도 사업 번창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RCO FOODS